**제18과 요시야의 개혁** 2018/5/6

◎ 찬송가(다같이) : 407장(통일 465장), 542장(통일 340장)

◎ 신앙고백(다같이) : 사도신경

◎ 말씀봉독(다같이) : 역대하 34장 1∼7절

◎ 본문읽기　◎ 주기도문(다같이) : 맨 마지막에

◎ 오늘의 만나　요시야는 우상을 숭배했던 아몬의 뒤를 이어 여덟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을 이끌었습니다.

**1.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요시야**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은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왕상 2:3)고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다윗의 말을 지침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왕국의 대부분의 왕들은 다윗의 당부를 저버렸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외적의 침략을 받는 등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하였고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시야는 제2의 다윗이라는 찬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요시야 왕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작은 예수’라는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로 인해 큰 축복과 은혜가 가정과 사회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2. 우상을 제거한 요시야**

요시야는 20세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알 제단, 태양 상, 아세라 목상, 부어 만든 우상, 아로새긴 우상 등을 없애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온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의 개혁에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개혁을 단행하여 온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대하 34:4∼5).

요시야 왕이 시행했던 개혁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쾌락의 우상, 인본주의의 우상, 물질만능주의의 우상과 같은 것들이 들어와있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가로챌 때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탐욕의 우상을 제거하고, 교만과 불순종의 우상, 원망과 불평의 우상, 미움과 다툼의 우상들을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의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요시야**

요시야는 즉위 18년에 폐허가 된 성전을 수축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율법책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모세오경이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이 책을 낭독할 때 요시야 왕은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 땅에 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 애통해 하며 회개의 의미로 옷을 찢었습니다(대하 34:18∼19).

더 나아가서 요시야 왕은 모든 제사장, 장로, 백성들을 불러모아 말씀을 읽어주며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백성들은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대하 34:31∼33).

회개 운동은 말씀을 근거로 전개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히 4:12).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며 순결하게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고 기적이 나타나며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성숙한 신앙인,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 유월절을 회복한 왕 요시야**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회복하여 온 국민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대하 35:1, 5∼6).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그중 마지막 재앙이 바로의 아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까지 죽임을 당하는 사망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사사시대 이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대하 35:18).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백성에게 유월절을 서둘러 시행하도록 했습니다.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 어린양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영적인 유월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영적인 유월절을 회복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 간추린 만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요시야>

1. 요시야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만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2.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 가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한 요시야>

1. 요시야는 남유다에 존재하는 산당을 폐하고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2. 우리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탐욕과 불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요시야>

1.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회개운동을 전개했습니다.

2.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한 왕 요시야>

1. 요시야는 사사시대 이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2.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 어린 양은 온 인류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 내 삶의 만나**

<옆 사람에게 인사>

1.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2. 마음속의 우상들을 제거합시다.

3.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4.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합시다.

<기 도>

1.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2.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3.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달라고 기도합시다.

4.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중보기도>옆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합시다.